

단순성과 간결성의 조화

The Balance Between Simplicity and Compactness

건축사 / 이용흠(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강 혁(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 Yong-Heum & Khang Hyuk  
일시 / 99. 6. 10. (목) 14:00~  
장소 / 일신설계



대담광경(왼쪽: 강 혁, 오른쪽: 이용흠)

강 혁 부산시립미술관이 98년 봄에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요 기획전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부산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산 미술계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된 셈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93년 전국 설계경기에서 일신설계가 당선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용흠 부산시립미술관은 93년도 당시 전국현상설계를 통하여 당선작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미술관이란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성격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표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찾고 직접 현지로 가서 미술관 사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미술관에 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개념정리도 완성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항구도시라는 딱딱하고 거친 감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문화시설이 건립되므로 해서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벗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열의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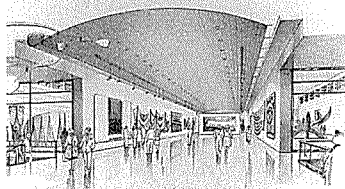
고 봅니다. 결국 설계자의 정열과 부산시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술관이 현재 위치에 건립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강 혁 이 프로젝트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개념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셨는지, 미술관 건축에 대해 평소에 무슨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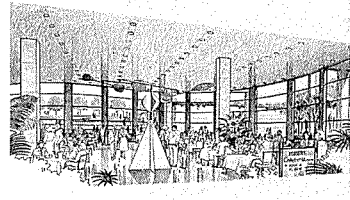
이용흠 저는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설계한 김벨미술관(Kimbell Museum)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재료자체를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작품을 감상하는데 관람객의 시선 집중성을 갖도록 하였다라는 점과 작품에 맞는 공간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설계구상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팀원들과 문화시설 측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일본을 견학하면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 부지의 입지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상징성 부여와 다이내믹한 디자인 및 지역민에게 친숙한 건물로 오래도록 인식되게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조감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전시실부분투시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카페테리아부분투시도)

64만

64만

64만

강 혁\_\_\_\_\_이 미술관 설계에 발주측의 주된 프로그램이나 요구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대개의 설계경기가 부실한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용흠\_\_\_\_\_ 조금전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미술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백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과 연계성, 미술관의 성격 규정, 필요시설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큐레이터(학예관)를 선정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현상설계 당시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당시부터 이런 부족한 것까지 포용해서 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 혁\_\_\_\_\_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미국건축가와 협동설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셨는지요?

이용흠\_\_\_\_\_ 미술관과 박물관같은 문화시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복잡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었고, 이 미술관을 진행하는데 개념정리를 현대적 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는 관계로 서구 현대건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건축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RBAN Design 을 전공한 미국의 건축가와 주로 초기 개념 스터디 단계에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FAX로 주고받으면서 유선으로 작가의 의도하는 바를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 혁\_\_\_\_\_ 현재의 건물은 초기 당선안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까? 또 초기 설계의 주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는지요?

이용흠\_\_\_\_\_ 현상설계 당시 때부터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크게 이미지를 흔들은 점은 없었고,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기술심의 때 위원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약간의 조정과 주변의 도시계획의 변경(광안대로)으로 전면부 옥외 조경 부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초기안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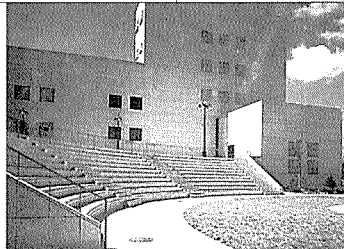
강 혁\_\_\_\_\_ 미술관은 공공 문화시설로서 그 입지조건과 부지의 맥락이 절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손쉬운 접근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여기에 좌우되니까요. 해운대구 수영비행장 옆 올림픽 공원의 한편에 자리잡은 부산시립미술관은 이 점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함께 지닌 사이트입니다. 또 그 사이 부지 주변의 여건과 도시 환경 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지 조건을 해석하셨는지, 또 무엇에 주목하셨는지요?

이용흠\_\_\_\_\_ 계획부지의 주변은 크게 관광 위락중심지인 해운대구역과 수비삼거리 및 정보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이고, 남측에는 서울올림픽 오프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 역민의 휴식 및 위락공간인 올림픽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 및 타 지역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다는 점이 타 미술관과 입지 선정상에서 유리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외곽지역으로 벗어나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미술관을 신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립미술관 부지와 같이 쉽게 접근하고 광장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가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갖게하여 올림픽공원 전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고, 부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변화성과 관람객의 동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큰가든을 형성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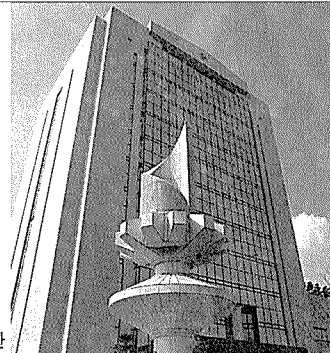
강 혁\_\_\_\_\_ 현재 시설은 올림픽 공원을 전면에 두고 수영로에 수직한 방향으로 강한 선형(Linear)의 일자 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 및 주변과 관련하여 주요 배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문화회관



울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과 소극장배면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64년

64년

64년

이용흠 \_\_\_\_\_ 올림픽공원의 축과 미술관의 배치축을 일치시켜 올림픽공원내 소형의 조각공원을 향해 정면성을 부여하였고, 올림픽공원과의 최대한 연계성을 살리도록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주변 휴식공간인 선크가든과 스텝가든 등 완충공간을 두어 리듬감을 갖도록 하였고, 주 진입부 및 중앙부, 후면부로의 연계성을 블록화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 동선을 주전시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여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선상으로 보면 보행자동선과 주차동선을 확실히 분리하였고, 보행자 동선이 2, 3층 전시실로 연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_\_\_\_\_ 바로 곁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광안대교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놓이는 등 맥락상의 변화가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치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요? 또 교통체계와 접근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이용흠 \_\_\_\_\_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고가도로가 정보단지부지와 계획부지사이 40m 도로측으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소음차단 및 미관상 주차장 출입구를 우동천 복개 부분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장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보단지 조성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려면 고가도로가 시선차단과 연계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주차출입구를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고, 스텝가든도 일부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계는 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40m 도로에서 한 차선을 확보하여 미술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어 미술관으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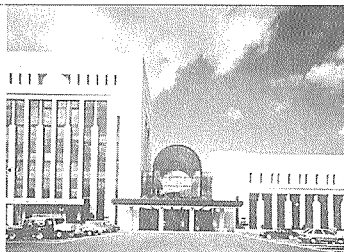
강 혁 \_\_\_\_\_ 과천 국립미술관처럼 '공원내의 미술관'이란 개념은 동일하지만 그 도시적 입지나 경사도,

접근성 등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공원과 미술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흠 \_\_\_\_\_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정적인 공간이 강한 공원의 위치에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어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적지의 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 미술관부지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는 입지조건이 다르지만 올림픽공원이란 도심속의 소공원을 갖고 있어 지역민들이 관람하기 위해 부지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첫째로 미술품을 관람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둘째로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동선의 변화성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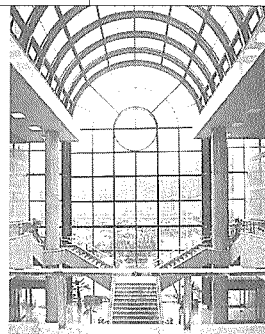
강 혁 \_\_\_\_\_ 이 건물은 부지 전면, 즉 공원 내에서 정면을 보기보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며 측면을 볼 때 더욱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합니다. 외관은 역삼각형이 반복되는 지붕 라인으로 해서 정체성을 지닌 것 같으나, 속자는 미술관으로서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_\_\_\_\_ 현상설계당시 지역적인 이미지 부각과 지역민이 동감하고 친숙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 부여에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였고, 현대의 문화시설에 부합될 수 있도록ダイナミック한 형태와 재료의 하이테크(High - Tech)한 특성을 갖도록 한 점이 있고, 외부의 단순성 및 내부공간의 간결성의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방금과 같은 단순하다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은 건축물 그 자체가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이미지 및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보는 이에게 오래도록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시립미술관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김벨미술관에서 그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였고, 간결하고 단순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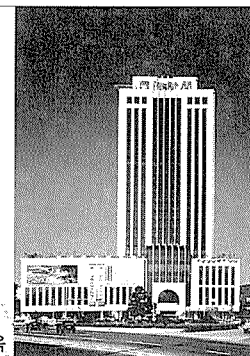


금정구청사

금정구청사: 아트리움



국제신문 사옥



바람

바람

바람

강 혁\_\_\_\_\_미술관 건축을 스스로 예술적 조형물이 되고자 하는 경향과 내부에 예술품을 기능적으로 담을 용이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굳이 나누다면 이 미술관은 후자에 더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전시공간이 충실하게 외적인 건물의 외관, 그것도 추상적인 형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모던한 건축으로 느껴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용흠\_\_\_\_\_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역삼 각형 네 개의(바다위의 범선상징) 지붕을 형성하여 반복되어 가도록 건축물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내부적으로 반복되는 네 개의 범선자체가 전시실 및 로비로 공간을 형성시켜 관람객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의 형성 및 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부여하기 위해 스테디를 많이 하였고 동선처리도 주 동선기능과 부 동선을 조화있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형태에 대한 비평에 좀 더 실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 혁\_\_\_\_\_이 건물의 외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후면에 반복되는 벽체의 면과 그 실루엣, 그리고 그것이 지어내는 입체감과 음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변에 사는지라 매일 이 건물을 보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상당히 표정이 바뀝니다. 특히 야경은 조명이 훌륭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색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마음을 하여 불륨을 둘러싸는 면들을 이루고 조인트가 조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_\_\_\_\_시립미술관을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하고, 이미지 부각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외장재를 복합알루미늄 패널로 선정했는데 하이테크(High Tech)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지위치가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의 외장재료가 선택의 폭이 좁았던 면도 있었지만 현대적 미술관을 표현하는데 현재의 재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조인트(T=30mm)를

선택한 것은 외벽에 계획의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조형의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을 처음 하다보니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 혁\_\_\_\_\_평면을 볼 것 같으면 매우 체계적(Systematic)이며 합리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과 동선공간,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관계가 단순 명쾌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미술관 건축에서 선호되는 유형의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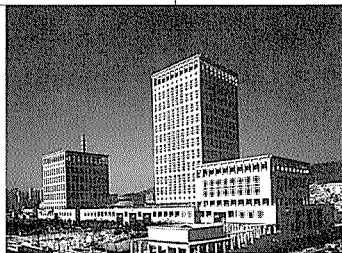
이용흠\_\_\_\_\_세계의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할 때 많은 관람객 사이에 끼어서 떠 밀리다시피 관람을 하고 나오면서 미술관의 전시공간 인지도가 희미해진 적이 있었고, 장시간동안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설계시 반영되도록 계획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축을 가지는 형태로서 네 개의 전시실이 동서축을 형성하고, 다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서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전시공간의 융통성을 극대화 하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남북 축을 전시공간의 홀과 휴식공간으로 설치하여 신체적인 피로감을 해소시키므로써 작품관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화성을 높였는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강 혁\_\_\_\_\_외관에 비해 내부공간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설치 미술이라든가 인터랙티브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비 등 공공공간이 다소 단조롭고 빈 느낌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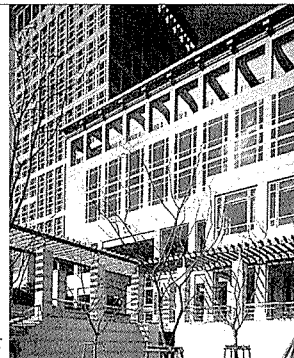
이용흠\_\_\_\_\_미술관처럼 문화시설의 건축



울산 제2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시의회 옥외 휴게공간

물은 설계당시 공간의 분할과 성격에 맞는 공간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간 작품의 조화가 있어야 비로소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아지며, 조화가 없는 건축물은 가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공 건축물을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더욱 더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아지며, 내부공간이 단조롭고 빈 느낌을 받는 것이 이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 혁 \_\_\_\_\_ 선큰가든 위로 난 브리지를 거쳐 현관 홀에 이르고 로비를 통해 각 층의 홀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명쾌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극적인 공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타 미술관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공간의 연출을 추구하기에 상대적으로 받게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의 특징 중 하나가 매스의 볼륨감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또한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지하층에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하고 관람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광장지점에서 1층 로비로 바로 진입하도록 연결브리지를 놓아 연계시켰는데 여기에서 선큰가든을 바라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 혁 \_\_\_\_\_ 각 층 홀을 연결하는 계단은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계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시선도 다양하게 연결되고요. 그러나 경사가 조금 급하고, 핸드레일이라든가 설치물 등에서 부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의견을 말해주시지요.

이용흠 \_\_\_\_\_ 미술관 중앙지점에 각 층을 연결하는 주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시설계시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에 의해 반영되어 설치되었는데 관람자가 걸어서 올라가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이 미술관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가미시켰는데 관람자의 시각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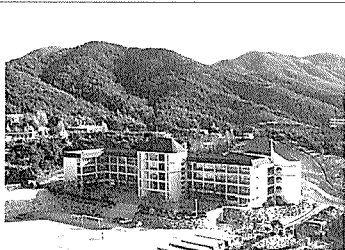
강 혁 \_\_\_\_\_ 천장이라든가 곳곳에 문화시설에 걸맞는 고급스런 재료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내부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경제적 제약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의 내부에는 대부분이 건식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전시실 벽면은 석고보드 위 마직천, 그리고 홀은 대리석계통인 트래버틴으로 마감하였으며, 바닥은 전시실과 3층 홀에서는 목재 플로링으로 마감하였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리석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충분한 재료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의 분위기에 맞는 재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전문가의 발주없이 건축설계안에서 처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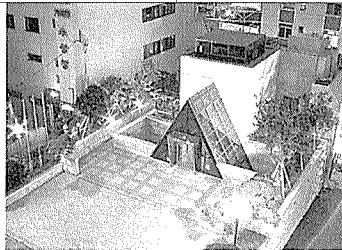
강 혁 \_\_\_\_\_ 어느 미술관과 달리 홀이 매우 밝고 조각을 전시하는 테라스로 통하는 큰 창을 통해 주변 경관이 많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이용흠 \_\_\_\_\_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외부의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도입을 시도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려 관람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층 조각테라스 홀을 12m 간격으로 두어 직접 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부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당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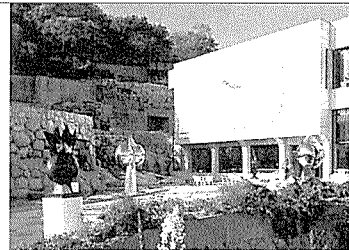
강 혁 \_\_\_\_\_ 1층 로비와 공공 공간의 바닥



동래초등학교



백산기념관



문신미술관

64년

64년

64년

을 트래버틴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3층 홀 바닥은 마루인데 비해 2층홀은 1층과 같은 트래버틴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루 바닥인데 더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어떠신지요?

이용흠 \_\_\_\_\_ 전시실 바닥 및 3층 로비를 관람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재로 선정하였습니다. 2층로비와 3층로비가 재료 선택에서 다른 점은 2층을 주로 기획전시위주로 전시가 되고 로비는 조각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당시 개념정리를 하여 1층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2층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층(상설전시)은 2층(기획전시)과 달리 작품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람자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 선정부터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3층전실에 하나의 전시실을 설치미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료 자체를 달리하여 작품성격에 맞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_\_\_\_\_ 전시공간은 미술관의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 형식이 있습니다만, 이 미술관에서는 동일한 모듈의 전시공간의 반복과 조합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은 전시성격별 특성 있는 공간구성 및 최대한의 전시벽면 확보에 공간구성을 계획하였고, 공간구성별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층에는 대공간 및 소공간의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전시방법 확보, 전시공간의 분할, 통합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3층 전시실은 12m 폭으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설전시공간 확보와 옥외 테라스를 이용한 조각전시공간 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면부 야외조각공원과 옥외 테라스조각 홀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과 수장 계획은 화물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하역계획 차원에서 대형화물은 1층 수장고에 위치하고, 중소형화물은 지하1층 수장고에 둘 수 있도록 하여 반입과 수장에 편리하도록 하층부에 위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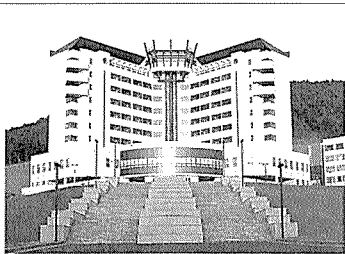
강 혁 \_\_\_\_\_ 제가 보기에 단위 전시공간의 크기가 미술품을 담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설치미술도 별 어려움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방형 모듈의 반복이다 보니 다소 공간의 분할에서 융통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은 대형 전시공간이 하나쯤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할지도 자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용흠 \_\_\_\_\_ 계획당시 전시실 모듈은 폭 12m 간격으로 반복시켜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편 타당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계획하다보니 변화성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층고를 그 당시 수영비행장 고도제한이 있는 관계로 2층에는 6.0m, 3층에는 6.6m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형 전시 작품을 전시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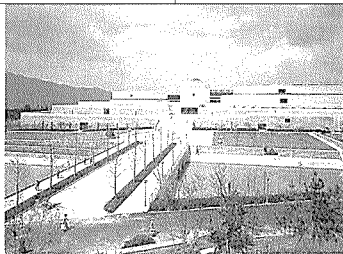
강 혁 \_\_\_\_\_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3층 전시공간이 지붕의 요철형태를 내부에서 반복하면서 자연광이 스며드는 천장이기를 기대했는데, 다소 미묘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천장 면에 여러 설비들이 노출되어 전시공간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용흠 \_\_\_\_\_ 3층 상설전시실 상부에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전시벽면에 빛이 확산하여 단도록 처리한 과정에서 입체감이 조금 상쇄되어 미묘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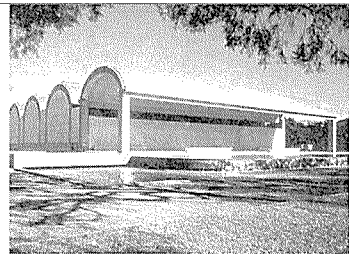
강 혁 \_\_\_\_\_ 이 미술관에서 특이한 것은 비교적 큰 선큰가든이 도입되고 지하 1층에 많은 시설과 기능이 들어간 점, 그리고 그것이 이면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선큰가든 앞에 훨씬 넓은 외부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은 밝고 진입이 편리하여 호감이 갑니다만, 공공 교통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



동명정보대학교 본관



과천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김인석)



김벨미술관(루이스칸)

64억

64억

64억

재, 마치 주진입부처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평지에 큰 선근  
가든이 도입된 이유와 외부 공간 조성의 요점, 주차장 등에 대  
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_\_\_\_\_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  
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변화성을 적극도입하여 하부층의  
자연채광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선근가든을 현재레벨에서  
5.4m 아래에 있게 하고 수정 공간을 도입하여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차원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조경공간 면적보  
다 약 2,000평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야외조각공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와의 연계가 좋  
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지하1층 선근가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어 주차장의 질적인 면에서 미술관의  
품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강 혁 \_\_\_\_\_ 부산시립미술관이 다 지어지  
고 나서 사용되는 현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쉽  
거나 미진한 부분이나 측면을 열거하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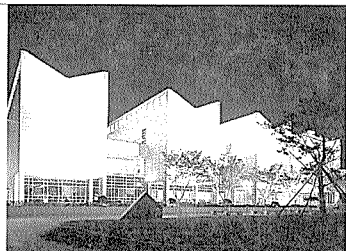
이용흠 \_\_\_\_\_ 별도 전문가의 인테리어 설계,  
가구설계, 기타 개관까지 필요한 설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  
과, 사전에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전문성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  
다는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 혁 \_\_\_\_\_ 미술관을 담는 공원의 활용과  
주변에 들어설 시설들, 예를 들자면 길 건너의 컨벤션센터와  
수영만의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하철 2호선의 완공 등을 고려  
해 볼 때,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적 맥락에서 장래  
부산미술관의 미래상을 한 번 가능해 보시죠.

이용흠 \_\_\_\_\_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컨벤션  
센터를 비롯하여 정보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에 올

림픽공원과 미술관을 연계하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릴예정이고, 지하  
철 2호선이 완공될 시점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될 경우 미술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에 대한 의욕과 건강이 계속된다면 현 시대의 건축가들의  
과제인 현대건축과 한국 전통의 접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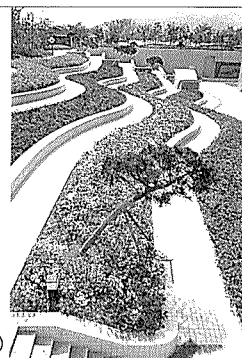
강 혁 \_\_\_\_\_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서측야경)



부산시립미술관(식당에서 본 스텝가든)



부산시립미술관(스텝가든)

64a

64b

64c